

지금 우리는 왜 인디언에 열광하나?

최근 인디언의 삶을 주제로 한 책들이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턱
없는, 달라리아 책의 열풍을 이을 또 하나의 '마음 공부' '영적 수행' 이야기
의 확산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왜, 지금 우리는 인디언에 관심을 갖는가? 그것은 분명 우리가 지금 살고 있
는 현대 문명에 결핍된 부분을 인디언의 삶에서 찾
고자 하는 욕구 때문일 것이다. 수천년의 전통을
이어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인디언들의 공동체적
상생의 삶에 대한 공감이, 그들의 독특한 문화와
백인들에 의해 짓밟힌 극적인 최후와 어우러지면서
신화화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인디언의 삶의 방식과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
미 60년대부터 미국의 젊은 세대가 열광한 바 있
다. 당시 미국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격렬한 변화를
경험하던 시기였고, 많은 젊은이들이 정신적 공황 상태
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취하던 때였다.



◇미국 순회강연 중 우르릉천둥, 1976년

‘우르릉천둥이 말한다’

카르멘 헤르스 포프 지음 / 조병준 옮김
나무심는 사람 / 1만 2천원

최근 나온 <우르릉천둥이 말한다>와 <구르는
천둥>은 체로키 인디언 치료사로 유명한 우르릉천
둥(Rolling Thunder, 우르릉천둥과 구르는 천둥은
동일인이다)을 다루었다.

<우르릉천둥이 말한다>는 그의 두 번째 부인이
었던 카르멘 헤르스 포프가 그의 연설문과 녹음테
이프를 직접 풀어낸 것이다. 그가 세상을 떠난
1997년 이후에 집필됐는데, 인디
언과 인디언이 아닌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담
았다.

<구르는 천둥>은 1974년 백인
인 '더글러스 보이드'가 쓴 책이다.

에피소드와 대화로 이루어진 이 책은 단순하고 분
명하게 서술되어 있다. 출간되었을 당시에 서구 사
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지금까지도 이 분야
에서는 고전에 속한다.

백인이 외부에서 인디언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형식으로 쓰여진 것이 <구르는 천둥>이라면, <우
르릉천둥이 말한다>는 인디언 우르릉천둥의 눈으
로 내부에서 밖을 향해 직접 우리에게 말을 하듯
이 쓰여졌다.

'영적 삶의 길은 하루 24시간 내내 이어지는 것
이며,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내 영적 삶

이것이 오늘의 우리 사회에 직수입되었다는 것은, 다르게 이해하면 우리 문화도
그만큼 정신적으로 황폐해지고, 삶의 방식 또한 미국화 되었다는 증거일 수 있
다. 우리 전통의 문화와 정신도 제대로 보존하고 계승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인
디언의 이야기에 집착하는 것은 지적 유희, 관념적 현실 비판 의식과 출판 상업
주의의 만능이 이루어낸 일시적 현상 아닐까 하
는 우려를 낳기도 한다.

녹색평론 김종철 대표는 "비폭력적 문화를 갖고
장기적으로 살아온 인디언들의 삶 자체가 독자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인디언의 본질적인 삶의
문제 특히 백인들에 의해 짓밟혔던 그들의 삶에 대
한 이해 없이 쏟아져 나오는 책들의 출간은 단순한
출판 현상에 불과하다"면서 "우리 사회가 갈망하는
것들에 대한 달콤한 읽을거리 정도의 상품적 차원
에서 접근한 책들은 가벼운 읽을거리로 전락할 가
능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구르는 천둥’

더글러스 보이드 지음 / 류시화 옮김
김영사 / 9천9백원

얼룩새끼 사슴과 결혼해 서부 내바다 주에 정착했
다. 이때부터 그는 치료사로서, 영적 조언자로서,
또한 인디언 부족의 대변자로서 개인과 사회, 지
구의 건강 문제에 적극 참여했다.

우르릉천둥은 히피 세대에서 이어진 뉴에이지
라는 정신적 폭발의 도화선 중 하나였다. 당시 미
국 젊은이들과 예술가들에게 끼친 우르릉천둥의
영향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이들은 우르릉천둥을 자신들의
영적인 지도자로 생각하고 그에게
서 많은 가르침과 영감을 받았다.
반전 세대의 대표이자 록 음악의
전설인 밥 딜런, 존 바에즈, 비트세
대를 대표하는 시인 알렌 긴즈버그 등이 우르릉
천둥으로부터 직접적인 영적 세례를 받은 사람들
이다.

우르릉천둥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인디언들
의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환자들을 치료할 뿐 아
니라, 지구에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고, 인
간 역시 그것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가
르침을 줬다. 그는 일관되게 '환경의 문제는 바로
마음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의 이런 활
동과 시각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은자 기자 elee@buddhania.com

인디언의 공동체적 상생의 삶에서 현대문명에 결여된 부분 배우고자

우르릉천둥은 1915년 미국 남동부의 그레이프
스모키 산맥에서 태어났다. 백인 정부에 의해 인
디언들이 황무지나 다름없는 보호구역 안으로 내
몰리던 시기였다. 타고난 산사람으로 홀머리 밑
에서 자라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부족의 지도자들
에게 특별한 능력을 인정받아 인디언 세계의 영적
지식과 의술을 전수받았다. 10대 후반에는 홀로
숲에 들어가 수행을 했고, 이때 처음으로 동물·
식물과 의사 소통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숲에
서 나온 뒤 본격적인 수행을 하며 여러 치료사의
제자로 입문해 가르침을 받았다. 30대에 '위대
한 영혼의 뜻'을 깨닫고, 쇼쇼니 족의 인디언 여성

살과 정신세계를 다루었다.
<돈 후앙의 가르침>(카를로스 카스타네다),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프리스트 카터),
<아메리카 인디언>(장 폴브르), <인디언의 모든
것>(제라르 몽콩블), <인디언의 복음>(E.T.시
튼), <인디언 숲으로 가다>(오이예사), <아메
리카 인디언의 땅>(필리프 자캥) 등이 그것들
이다.

이외에 인디언 추장들의 연설문을 모은 <나
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시애틀 추장), 인디
언들의 우화를 모은 <인디언 우화>(수잔 펠트
만), <아메리카 인디언 어린이들은 어떻게 살았
을까>(미셸 피코프) 등이 있다.
이 가운데 80년대 후반 출간된 이후 절판 되
었던 <돈 후앙의 가르침>과 <나는 왜 너가 아
니고 나인가>는 재출간될 예정이다.

‘진화론’을 인류문화 시각서 정리



<이것이 생물학이다(This is Biology)>는 에른스
트 마이어가 90세의 나이에 그 동안 일구어온 학
문적 업적에 근거하여 생물학이란 무엇인가를 명
쾌하게 정의한 것이다. 생물학의 전반적인 학문적
특성을 다른 과학 학문분야와 비교하면서 생명에
대한 정의, 그리고 생물계의 진화이론을 생물, 인
류 문화적 관점에서 생물진화론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있다.

에른스트 마이어는 독일태생으
로 조류분류학, 집단유전학, 그리고
진화론 연구를 통해서 생물학의
역사와 철학분야를 개척하였으며
유럽의 우수한 대학들에서 연구와
강의를 하였다. 그는 이들을 진화
의 종합설이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
다임을 형성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현재 96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하버드대학의 명예교수로 진화생
물학계를 이끌고 있으며 "진화는
장(One long Argument)"을 포함하
여 "새로운 생물철학에 대하여
(Toward a new Philosophy of
Biology)", "생물학적 사고의 발달
(The growth of Biological Thought)" 등 많은 저서
를 가지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생명의 의미를 역사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진화능력, 자기복제능력, 진화프로그램
을 통한 성장, 분화능력, 대사의 능력, 자기제어 능
력, 환경의 지구에 대한 반응능력, 그리고 유전자
형과 표현형에서 변화할 수 있는 능력 등을 들어
생명을 구체적
으로 정의하고
있다.

생물학은 화
학이나 물리학
과 같은 자율적
과학이며 생물체의 경이로움을 좇아서 생물학자
가 된다는 것은 삶의 한 방식을 선택함을 의미하
는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생명에 대한 생
각을 피력하고 있다. 생물세계에 대한 설명을 만
들고 시험하는 생물학자들은 생물학의 이론구성
은 법칙보다는 개념에 근거하고 있음을 주장하면
서 생물학 역시 다른 과학과 같이 진보한다고 설
명한다.

그는 특히 세포의 발견, 핵에 대한 이해, 그리고
유전자에 대한 이해 등과 같은 중대한 과학혁명들
이 생물학의 이론을 발전시켜왔음은 분명하지만
다윈적 진화이론이 생물학에서 일어나는 이론
변화를 보다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면서 생물학
은 다른 과학과 구분된다고 말한다.

<이것이 생물학이다>는 진화생물학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에른스트 마이어가 쓴 책이다. 생물학이
물리학이나 화학과 어떻게 다른지 어떤 의미에서 그들과 똑같은 종류의 과학인지를 역설하면서 시작되는
이 책은 생물학, 생물학의 역사, 그리고 생물학의 철학을 아우르고 있다.

현대생물학은 근대과학으로 자리하기 시작한
19세기 중반이후 생물학의 다양한 영역은 독자적
으로 학문영역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이들 학문영
역은 지배적 이론이나 기본개념의 본질에서는 차
이를 나타내고 있다.

수천 수백만 수십억 개의 개체들로 구성되는 지
구 생물세계의 다양성은 생물 종에 대한 분류에서
시작하여 1859년 "종의 기원"으로 대표되는 다윈
의 업적의 근간이 되었고, 더 나아가 생물 종들 사
이의 관계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계통분
류학의 학문영역으로 발전하였으며 현대생물학의
여러 영역들의 근간을 제공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생물분류학의 기본개
념과 방법론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어서 일반인들도 쉽게 생물다
양성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이 책에서 그는 중세이후 다윈
의 진화이론을 포함하여 근대의
도브잔스키(유전학)와 종의 기원,
1937), 마이어(종의 분화, 1942),
심슨(고적학 분류, 대진화, 1944)
등으로 정리된 "종합적 진화이
론"까지 소개한다.

특히 최근에 논의되는 집단선
택, 사회생물학, 그리고 분자생물
학적 관점에서 생물의 진화에 대
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생물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생물
학의 한 영역으로써 생태학의 발달과정과 영역
을 소개하고, 생태계의 구성원이자 한 생물 종으
로서 인간의 위치를 설정하고 있다.

현대인류가 지구에 출현하여 진화되어온 과정을
유인원, 그리고 화석 속에 남아있는 다양한 인류들
을 통해 현생인류의 생물학적 위치를 확인하고 있으
며, 인류문화의
발달과정을 또한
진화적 관점에서
흥미 있게 설명
하고 있다.

특히 다윈의
진화론은 유일신 종교뿐만 아니라 철학자들에 의
해 주어진 자연에서의 인간의 독자적 위치를 박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사회에서 조자연적
요소들을 제거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사회적 동물
으로써 인간사회가 가꾸어왔던 인간윤리의 변화에
미친 영향과 변화방향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진화는 우리들에게는 시계명과
같이 명문화된 윤리규범들을 제공하지 않지만, 개
인의 필요를 넘어 건강한 인간사회를 유지할 수 있
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존되는 세계미래를 위한 윤
리체계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세계관을 제공한다면
서 자신의 생물진화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
(김이숙재 / 송남대 감사(생물학 전과))

‘이것이 생물학이다’ 에른스트 마이어 지음 물과 마음 / 1만 8천원



인간윤리 변화에 끼친 영향 등 상세 소개 생물학과 생물학의 역사·철학까지 담아

이 책은 생물학의 역사, 그리고 생물학의 철학을 아우르고 있다.

이것이 생물학이다

이 책은 생물학, 생물학의 역사, 그리고 생물학의 철학을 아우르고 있다.

인디언 관련 책들

국내에서 인디언의 이야기를 다룬 책들은 90
년대 후반에 본격적으로 출간됐다.

백인들에 의해 짓밟힌 인디언 확장의 역사
를 다루고 있는 <검은 사슴은 말한다>(G. 나이
하르트)와 <나는 운디드니에 물어주오>(디 브
라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인디언의 독특한

살과 정신세계를 다루었다.

<돈 후앙의 가르침>(카를로스 카스타네다),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프리스트 카터),
<아메리카 인디언>(장 폴브르), <인디언의 모든
것>(제라르 몽콩블), <인디언의 복음>(E.T.시
튼), <인디언 숲으로 가다>(오이예사), <아메
리카 인디언의 땅>(필리프 자캥) 등이 그것들
이다.

이외에 인디언 추장들의 연설문을 모은 <나
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시애틀 추장), 인디
언들의 우화를 모은 <인디언 우화>(수잔 펠트
만), <아메리카 인디언 어린이들은 어떻게 살았
을까>(미셸 피코프) 등이 있다.

이 가운데 80년대 후반 출간된 이후 절판 되
었던 <돈 후앙의 가르침>과 <나는 왜 너가 아
니고 나인가>는 재출간될 예정이다.

모 제3회 집 국제 전문 자격시 취득 안내

“부처님의 극락 불탑의 나라 황금의 사원미안마”



미안마, 중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한국, 공용 국제자격증
국제 포교를 위해 증설한 미안마 국제 아우미까지 성도 대학원에서
지식인들의 등용문이 되고자 다음 해당 학과 학생을 모집합니다.

국제전문자격취득과정

- 1 전동 짐승 국제 자격증반
- 2 스포츠 기압 국제 자격증반
- 3 비만 클리닉 백집 자격증반
- 4 명예 철학박사 학위반

지원 자격

- 1 남녀 만 27세 이상 60세 미만
- 2 연개 짐승 또는 경력 1년 이상인자
- 3 학력 제한 없음
- 4 지원서, 등본1통, 사진6매, 이력서

(대학원 확장과 한국 분교 증설로 이번기회 전원 무시험 통과 자격 취득)

- ◆ 접수 및 문의 : 031)867-4131 / 팩스 031)867-4134 / 011)214-4135 / 018)370-4133
- ◆ 홈페이지 접수 : www.sukamony.or.kr
- ◆ 지원서 접수 마감 : 양력 12월 15일
- ◆ 출발일 : 양력 26일 ~ 30일 (4박5일 - 일정에 관광포함)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 蔘 長 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골준비에 지친 수행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자각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본초에는 上藥 120가
지 中藥 120가지 下藥 125가
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
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
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
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
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
록되어 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
해 내려왔다.
- ◆ 당뇨병, 신장병(등매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이면
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
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약약 되
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 정력강화(조부중,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
가 있다.
-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신된다.
-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장경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修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元氣와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우게 精進하시옵기를 祈
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가지셨
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오자 하오니 부담없이 勿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당(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당(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산삼물품질관리검정실(분서 51160-150)
심마당 長腦山蔘